2021년 1차 생통포럼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16시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상상실현네트워크

❑ 주관 : (사)청년문화허브, ㈜잇다, ㈜파크인터네셔널, (협)플리마코 협동조합, 동네줌인, 만렙기획, 버틀러스코리아, 안다미로, 오로지스튜디오, 와사비아, 청년미래전략센터,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사)대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극단 연인,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집,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무순)

■ 프로그램 (사회 : 한선 호남대학교 교수)

구분	토론자	
발 제	- 김준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지정토론	- 임인자(소년의 서 대표)	
패 널	- 박호재(前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 이강필(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 -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김종필(광주문도협 협동 사무국장) -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종합토론 및 현장참여		

■ 목 차

1. 발 제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05
2. 지정토론 임인자 소년의 서 대표 ---------- 31
3. 패 널(1)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 49
4. 패 널(2) 이강필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 ---------- 51
5. 패 널(3)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55
6. 패 널(4) 김종필 광주문도협 협동사무국장 ---------- 59
7. 패 널(5)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61
8. 패 널(6)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 65

발표문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실천계획

김 준 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실천 계획

김 준 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특별주간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광주를 위한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 5대 ‘함께’ 문화비전 : 함께 참여, 함께 실현, 함께 누림, 함께 번영, 함께 포용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실천계획 〉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의 추진실적과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살펴보자.

[핵심비전1. “함께”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 구축]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협치행정으로 해결해왔으며, 문화예술 분야 또한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정책1.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과 운영

지난 2월 15일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의제를 협치로 풀어내기 위해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는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문화, 인권교육, 청소년 등 9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분과는 광주예총, 민예총 등 시민문화단체 대표와 우리 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과 개요**

❍ 임　　기 : 2년

❍ 구성인원 : 15명 구성(위원장 이기훈)

❍ 기　　능 : 민관 협치 회의에 의제 제안, 문화정책 및 사업 제안 등

□ **추진실적**

❍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개최(4회)

- '21. 3. 2. / '21. 3. 15. / '21. 4. 2. / '21. 5. 17.

※ 제5차 민관 협치위원회 문화분과 개최('21. 6. 10. 예정)

정책2.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 운영

지난 3월 28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였다. 참여자와 실무진간 사전 의견검토나 조율 없이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며, 제시된 안건은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 **추진개요**

❍ 기　　간 : '21. 4. 28.(수) ~

❍ 대　　상 :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분야

❍ 주요내용 : 문화예술분야 발전방향 및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 방　　법

(접수) 매월 3째주 월~금(10:00~17:00), 전화접수(☎613-3426)

(운영)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5:00~17:00

□ **추진실적**

회차	일시	참여	주요내용
1회	'21.4.28.(수)	3팀 / 7명	·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울어지는 공연 지원 · 디자인비엔날레 지역과 소통강화 · 경양방죽의 역사성을 살린 문화행사 추진
2회	'21.5.26.(수)	2팀 / 4명	· 지역 영화산업 발전방안 · 청년예술인 창업지원 등 자립방안 마련

정책3.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운영

2020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범 시민적인 소통 및 협의채널인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통일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협의체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2020년 11월 16일 우리 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주요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지역여론 알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추진하여「아특법 개정안」통과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립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운영개요

❍ 구　　성 : 2020. 10. 6.

❍ 참여기관 : 10개 기관.단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원 노조, 5.18 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 유족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병훈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 내　　용 : 아특법 개정 관련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 논의

▢ 추진실적

❍ 1차 전체회의 개최('20.10.6.) / 1차 실무회의 개최('20.10.26.)

❍ 2차 실무회의 개최('20.11.5.)

❍ 아시아문화전당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 체결('20.11.16.)

❍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21.2.26.)

❍ 2차 전체회의 개최('21.3.19.)

❍ 3~5차 실무회의 개최('21.4.19.), ('21.5.4.), ('21.5.27.)

[핵심비전2. “함께” 실현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정책 강화]

광주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문화예술생태계 지원 강화대책에 더욱 섬세한 노력을 기울인다.

정책4. 민간경상보조금 통합공모제도 개선 및 정산절차 간소화

지난해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분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장르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받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는 통합공모제도를 시행하였다. 통합공모제도 시행으로 신생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여성·장애인 단체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공모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 **사업개요**

❍ 기　　간 : ’21. 4월 ~ 12월

❍ 소요예산 : 2,740백만원(시비)

❍ 지원분야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분　야	장　　르	총 사업비
문학 진흥	문　　학	250
시각예술진흥	미술, 서예, 사진, 장애인미술	490
공연예술진흥	국악, 무용, 연극, 클래식음악, 다원	2,000

❍ 대　　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심의·선정

□ **추진실적**

❍ (’20년) 13개 장르/117건 접수/ 76건 선정

❍ (’21년) 10개 장르/122건 접수/ 80건 선정

□ **개선사항**

❍ ’21. 12월부터 공모 준비하여 ’22. 1월에 공고 할 수 있도록 추진

※ ’21년 : 2월초 공모, 4월 선정 완료

보조사업자들이 정산이나 회계처리과정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표준화된 보조금 집행지침과 교부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복·불필요한 행정서식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정산을 간소화하고, 문화재단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정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 지원사업 개선 실무 TF 운영

- 운영기간 : '21. 5. ~ 7.(3개월) / 월 2회 회의
- 구　　성 : 10인 내외(시 2, 문화재단 3, 민간전문가 자문 5)
- 소요예산 : 3백만원

소관기관	내 용
시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집행지침 및 교부조건 표준안 마련 ▸ 문화예술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문화재단	▸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검토(타 시.도 사례 분석) ▸ 지원사업 중복·불필요한 행정서식 발굴 ▸ 사업별 특성을 반영 정산간소화 방안 마련 등

정책5. 청년 및 신진작가 예술활동 지원 및 한예종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유치

청년예술가 및 신진작가들이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기획, 작품제작과 작품발표 공간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력양성, 인턴쉽, 강사 지원 및 문화일자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주요사업(2021년)**

○ 역량강화 및 일자리 사업　8건 1,617백만원 지원

사업명	내 용	사업비(백만원)
계	8건	1,617
지역주도형 청년 비엔날레 인력양성	· 기획 및 큐레이팅 인력양성, 취업지원	262
지역주도형 청년 문화일자리 지원	·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청년 구직자 배치	364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 기획자 양성	130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 창제작 지원	173

사업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인턴십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215
학교예술 강사 지원(국악강사)	· 강사비, 제수당	352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 입주작가 발표전, 창작활동, 네트워크 지원	49
문화예술 강사지원	· 예술강사 지원	72

○ 청년작가 예술활동 지원 : 61건 974백만원(문화재단 사업 포함)

○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실무TF팀 운영 : '21. 5. ~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대책 강구

지역내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옆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조성중이다. 지난해 시설조성 사업비 9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설계중이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개관예정이다.

□ **한예종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조성계획**

❍ (업무협약)시-ACC-한예종 지역 우수 예술영재육성 협약('21. 6.)

❍ (교육공간 조성/ACC)건축설계('21.3.~10.),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22.1.~12.), 시운전 및 개관 준비('23.1.~2.)

❍ (교육운영 준비/한예종)교육부 심의(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22. 상반기), 모집공고 및 학생 선발('22.10.~'23.2.)

❍ 광주캠퍼스 정식 개원('23. 3.)

정책6. 예술인 보듬센터 개설 운영

광주문화재단내 예술인 보듬・소통센터는 생활안정자금 접수·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 지원사업, 예술인 실태조사 등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예술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 광주문화재단 현장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한 예술인보듬・소통센터 개설 운영

- 예술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술인보듬소통센터」신설('21. 2.), 4명 근무

□ **추진사항**

○ 광주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접수・지원(총729건 지원)

○ 예술활동증명 : 누적 2,187명(2021.5.기준)

○ 창작준비금(상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추진(총354명)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인 55명 지원, 기업・기관 11개소 매칭)

- 예술인활동비 총6개월 지원(429백만원)
- (리더예술인) 총11명, 월140만원씩 (참여예술인) 총44명, 월120만원

○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분야별 전문가 연계 컨설팅) 운영

분야	내 용	분야	내 용
행정	창작지원, 정산, 단체설립	복지	예술인 복지 정책 · 사업 안내
법률	저작권, 불공정계약, 성폭력・성희롱 신고	의료	예술인 의료비 지원
노무	예술인고용보험	심리	(개인/집단) 심리상담, 심리검사

□ **향후계획**

○ 광주예술인실태조사 추진 : '21. 6. ~ 12.

○ 찾아가는 예술인복지서비스 똑.똑.똑. 운영 : '21. 6. ~ 12.

○ 예술인원스톱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21. 7. ~ 12.

정책7. 문화메세나 운동 전개 및 문화펀드 조성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펀딩 프로젝트", "기업메세나" 활동 등을 통한 문화메세나 운동, 문화펀드 조성을 위한 "문화보둠10000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재단 잉여금을 활용해 문화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문화보둠10000운동 전개 및 문화보둠10000센터 운영
-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추진(창·제작자 지원 매칭메세나)
- 기업의 사회공헌 및 예술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메세나 추진

○ 사업예산 : 193백만원(국·시비 90, 문화재단 23, 기부금 8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민 참여형 문화모둠 10000운동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1만원씩 기부하는 광주형 메세나 운동

⇒ 회원수 1,242명(최초 2015 누계 모금액 356백만원)

❍ 문화예술 펀딩 프로젝트('만세만세 만(萬)만(滿)계')

- 예술가(단체)가 기부금 모금액 만큼 매칭하여 지원

※ '20년 기준 20개 예술단체 참여 / 기부금 78백만원, 매칭 78백만원(시 출연금) 지원

❍ 기업 메세나(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 문화관심 기업 발굴 및 예술인 1:1매칭

⇒ 한국메세나협회(국비) : 50백만원 / 기업기부금 : 50백만원

□ **향후계획**

❍ 시민들의 문화메세나 운동 참여를 위한 문화보듬 10000운동 회원 모집

❍ 국비 공모를 통한 지역내 문화예술 펀딩프로젝트 강화

- 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 (재)광주문화재단 지정기부단체 재선정

❍ 지역내 중소·중견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를 매칭하는 기업메세나 확대

❍ 문화재단 잉여금 활용 문화예술펀드 조성 방안 검토

[핵심비전3. “함께” 누리는 문화향유 서비스 체계 마련]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품격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춘다.

정책8. 양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제공 및 대형축제행사 연계

올해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야외공연 창작사업으로 177개 단체 또는 예술가들의 각종 전시, 공연, 축제 등 문화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 **광주문화재단 문화콘텐츠사업 지원현황(2021년)**

구 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야외공연창작지원
총사업비	494백만원	1,626백만원	180백만원
재원구분	국비 247백만원 시비 247백만원	시비 1,626백만원	시비 180백만원
선정단체	6개 단체	163개 단체(개인)	8개 단체
지원금액	396백만원	1,514백만원	160백만원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지난해부터 메인행사기간 동안에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사업에 미디어파사드 등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광주비엔날레, 국악상설공연, 충장축제 등 지역의 대표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사업개요**

- ❍ 기 간 : ’21. 5. ~ 12.
- ❍ 장 소 : 광주광역시 일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 ❍ 주 제 : ‘the new local’(새로운 지역)
- ❍ 주 최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메인행사>

❊ 행 사 명 :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 기　　간 : '21. 10. 5. ~ 10.10. 예정
❊ 장　　소 : 광주광역시 일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 내　　용 : 개막식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 광장축제, 부대행사 등

□ 행사연계

❍ 아트페어, 프린지페스티벌, 대인예술시장, 궁동 예술의거리, 광주비엔날레, 국악상설공연, 충장축제 등 지역대표 행사와 연계 상승효과 제고

추진일정

❍ 총감독 공모 및 선정 : '21. 5.
❍ 대외협력기관 실무협의 및 대행사 입찰 공모, 선정(계약) : '21. 6.~7.
❍ 프로그램(안) 최종 확정 : '21. 7.~8.
❍ 참여 기업 및 작가 선정 : '21. 8.
❍ 각종 홍보물 게시 및 온·오프라인 홍보 : '21. 9.

정책9. 예술단체, 동호회, 동아리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강좌제공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단체, 동호회, 동아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 학생, 일반인, 노인 대상 각종 문화예술 강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한다.

사업개요

①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 및 동아리 지원
❍ 사 업 비 : 44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진작을 위한 예술동아리 지원

②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120, 시120)
❍ 사업내용 : 문화시설에 특화된 예술동호회 양성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③ 시민문화예술 교양강좌 운영
❍ 사 업 비 : 72백만원(문화예술강사 지원) / 28.8백만원(시민예술대학 운영)
❍ 사업내용
- 문화예술강사 지원 :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공공시설 파견(도서관, 복지관 등)
- 시민예술대학 운영 : 문화예술계 명사를 초청하여 시민대상 교양강좌 운영

추진실적

❍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 및 동아리 지원 선정 : 135건

- 단체 45건/225백만원(건별 5백만원), 동아리 90건/135백만원(건별 1.5백만원)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총9개 단체, 56개 동호회 (단체별 1 ~ 3천만원)

❍ 시민문화예술 교양강좌 주관단체 선정

- 문화예술강사 지원(대동문화재단) : 문화예술 전문강사 30여명 선발 예정
- 시민예술대학 운영(한국예총광주광역시 연합회) : 20회 내외 강좌 진행 예정

정책10.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직상설공연장, 미디어아트센터(AMT), 광주문학관, 광주대표 문화마을,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대형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학의 본산을 기념하는 아시아문학공원,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콜라보하는 문화예술 종합 창작센터,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를 재조명하는 광주역사박물관 등 새로운 문화기반시설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인다.

사업현황

사업명(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조성(2020.~2023.)	위치 :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사업내용 : 무대및부대시설, 잔디광장, 외부 부설주차장, 야외 화장실 등	190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중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조성 (2017.~2021.10.)	위치 : 남구 천변좌로 338 일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사업내용 : 퓨처랩 1,2, 컨벤션 공간, 교류센터, 기획전시실, 딥 스페이스 등	278	공사중('19.12.)
광주대표도서관 건립(2017.~2023.)	위치 : 서구 상무소각장 부지 내 사업내용 : 보존서고, 자료이용실, 교육실, 전시실, 다목적실 등	39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20.1.~21.9.)
광주문학관건립 (2019.~2022.)	위치 : 북구 시화문화마을 사업내용 : 상설 및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창작실, 수장고, 문화 사랑방, 사무실 등	136	전시설계및 제작설치용역 추진중 ('20.2.~22.12.)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2019.~2023.)	위치 : 동구 동명동 일원 사업내용 : 4개 테마거리 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70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중('21.3.~7.)

사업명(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신창동유적학습체험관 건립(2018.~2022.)	위치 : 광산구 신창동 1073-1 일원 사업내용 :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등	120	공사중 ('20.12.~'21.12.)
광주전통생활 음악당 건립(2021~2024)	위치 : 서구 일원 사업내용 : 공연장, 교육관, 시민체험관, 아카이브 연구동 등	400	용역 준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2020.~2024.)	위치 : 북구 비엔날레주차장 일원 사업내용 : 전시실, 행사지원공간, 아카이브관, 교육참여프로그램 공간 등	1,500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계획중인 사업

사업명(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또는 계획)
아시아아트플라자 조성	사업기간 : '22.~'25. 사업내용 - 레지던시·게스트룸 +창작연습,쇼케이스 공간 +정보교류	300 (국150 시1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22 연차별 실시계획 신규사업
빛고을 아트시어터 건립	사업기간 : '22.~'25. 사업내용 - 1,200~1,500석 규모 공연장 건립	950 (국475 시475	〃
아시아예술자유 특구 조성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사업기간 : '21.~'23. 사업내용 - 예술장르의 융복합 교육, 교류, 협력 창제작 공간, - 국내외 작가들의 체류공간	150 (국50 시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22 연차별 실시계획 계속사업
광주역사박물관	사업기간 : '23.~'27. 사업내용 - 마한,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시대별로 조명하는 전시·체험공간 조성	미정	신창동 인근에 건립 시사편찬위원회 및 문화재 발굴단 발족
아시아문학공원	사업기간 : '22.~'25. 사업내용 - 문학비 건립, 문학길 및 문학창작 공간조성	미정	문학도시 광주조성 추진단 구성 운영 : '21. 7. ~

정책11. 광주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공연영상, 문화행사, 문화일자리, 문화예술자원 등 광주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을 8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구축개요

❍ 기　　간 : 2019. ~ 2022.
- 기본계획 용역 및 시범모델 개발 : '19. ~ '20.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1. ~ '22.

❍ 주관기관 : 광주문화재단

❍ 소요예산 : 400백만원(구축비 100, 운영비 300)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공연·전시 동향, 일자리 및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

추진사항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협업팀 운영(4회) : '19. 5. /8./9./10.

❍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19. 7. ~ 10.(4개월)

❍ 시범모델 개발 및 운영 : '19. 12. ~ '20. 4.
-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광주문화예술 메뉴 신설 및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 플랫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 2 .~

❍ 플랫폼 구축을 위한 문화재단 홈페이지 리노베이션 : '21. 3 . ~

향후계획

❍ 광주문화예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1. 6. ~
-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업체 공모('21. 7. ~ 8.)
- 플랫폼 전용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 본격화('21. 8. ~)

[핵심비전4. 함께 번영하는 문화환경 조성]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하는 only one 전략으로 광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책12.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

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전담기구 설치 및 영화아카이빙 등 추진을 위해 영상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독립영화제 예산증액과 촬영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광주극장영화제, 여성영화제, 독립영화제 개최 등 영화제 지원도 확대한다.

추진계획

❍ 영상.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2022~2026, 5년) : '21. 5. ~ 9.
- 영화전담기구 설치, 영화아카이빙, 영화플랫폼 운영, 취.창업 제도적 지원 등 포함

❍ 영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영화 제작 지원, 전용관 지원 등) : '21. 5. ~ 12.
- 독립영화제 예산 증액, 촬영장비 지원(GCC 시설 구축시)

❍ 광주극장영화제(10월, 50백만원), 여성영화제(11월, 100백만원), 독립영화제(12월, 30백만원) 개최

정책13.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활성화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는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4월 공방임대료 감면과 골목벽화, 야간조명 등 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시, 자치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예품 구매 홍보도 지원하였다. 시티투어버스가 본격 운영되면 정차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며, 공공와이파이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시설 : 입주공방 12개소, 전시관, 체험장, 전시판매점, 홍보관 등

추진사항

❍ 공방 임대료 및 골목벽화, 야간조명, 음향설비 등 환경개선 : '21. 4.

❍ 市, 자치구, 공공기관 대상 공예품 구매 협조 : '21. 4.

향후계획

❍ 입주공방 공예품 구입 홍보 및 공공와이파이 설치 : '21. 6.

○ 시티투어버스 정차시간 연장(30분→50분) 시행 : '21. 7.~

정책14. 광주정신 기반 다양한 콘텐츠의 대중화

광주정신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관현악곡, 뮤지컬 등을 창작하여 공연하고 있으며, '5·18을 주제로 하거나 5·18을 기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도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전국화·세계화에 힘쓸 계획이다.

사업개요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 기　　간: '18 ~ '22(5개년)
- 소요예산: 8,300백만원(국비 4,150, 시비 4,150)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 내　용: '임을 위한 행진곡'기반 창작 관현악곡 및 뮤지컬 광주 제작.보급, 표준가사 번역·보급 등

❍ 5·18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통합공모)
- 오월 예술극장 등 11개 사업 405백만원 (20년 8개 사업 390백만원,/20년 대비, 3개 15백만원 증)

추진실적

❍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추진계획 수립 : '17. 8. 30.
❍ 관현악곡 창제작(8곡) 및 국내외 공연 : '18. 2. ~'19. 12.
❍ 창작관현악곡 국내공연(총 13회) : '20. 5. ~ 12.
❍ 창작뮤지컬 '광주' 공연(74회) : '20. 10. ~'21. 5.
❍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 통합공모 및 선정 : '21. 2. ~ 4.

향후계획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반 창작 관현악곡 국내순회 공연 : '21. 6. ~ 11.
- 해외 오케스트라 연주회 온라인 콘텐츠 제작

❍ 5·18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추진 : '21. 6. ~ 12.

정책15. 예술관광 중심도시 본격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문화예술과 관광을 창조적으로 융복합화하고 '예술관광'을 브랜딩하여 광주관광을 활성화한다. 광주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과 매력을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 개발하여 고품격·고부가가치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고, 특히, 국악상설공연은 광주국악인의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로 만들고, 광주시티투어코스에 포함하여 광주에 오면 꼭 봐야 할 관광코스로 운영한다.

중점추진

❍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의 구축**

- 자치구별로 거점예술여행센터를 설립하여 관광기업의 활동거점으로 조성

❍ **광주 예술관광의 브랜드 콘텐츠 모색**

- [공간] 4대 권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관, 무등산, 양림동
- [축제] 핵심 예술축제: 광주비엔날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 [작가] 차별화된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교류(작가-전문가, 소수마니아 등)
- [장르] 광주 예술관광 주력분야 : 현대미술, 미디어아트, 국악상설공연 등

❍ **예술관광자원의 발굴과 예술관광상품 개발**

- 전당을 비롯한 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과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축제를 활용한 예술관광상품 개발

❍ **예술여행도시로서 브랜드 마케팅 강화**

-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개발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여 관광마케팅 추진

추진실적

❍ `20아시아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 `20.9.~`21.2.
- 전문인력 37인 양성(기획 19, 도슨트 18)

❍ 기초단위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지원사업 추진 : `20.8.~
- 3개소 운영 : 동구(창업센터형), 남구, 북구(서비스센터형)

❍ 예술관광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 개최 : `21.2.

❍ '제1회 광주 예술여행콘텐츠 공모전' 개최 : '21.4.
- 2개 분야 11건 선정

향후계획

❍ 예술여행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21. 6.~
- `20.~`23년 200명 내외 양성 목표

❍ 예술관광 전문기업 스타트업 발굴·지원 : '21. 6.~
- 관광상품개발, ICT·플랫폼, 마케팅 3개 분야

❍ 국악상설공연 활용 광주시티투어 코스 운영

정책16. 예술의거리 활성화 및 무등산 문화거리 조성

예술의거리는 전남도청,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형시설의 이전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의 거리 확대 등을 통해 새롭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무등산 주변 5개 사립미술관은 전통문화관, 카페,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무등산 문화거리'로 조성한다.

예술의거리 활성화

❍ 사업기간 : 2009. ~ 지속
❍ 장　　소 :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일원
❍ 사업내용 : 예술품과 문화체험이 상시 유통되는 예술의 거리 운영
- 토요일 시민, 작가, 상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공연(동구 밭 아시안길)
- 미로마켓 온앤오프, 미로라운드테이블, 어게인 오센집,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등

❍ 총사업비 : 4,100백만원('09.~'21.)
❍ 예술의 거리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검토　　: '21. 6. ~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2022년 연구용역 예산 반영

무등산권 문화거리 조성

○ 주요사업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계	1,700
무등산 달빛걸음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1,000
춘설헌(석아정, 오방정), 문향정, 물레방아 정비	100
무등산녹차 스토리텔링 및 관광기념품 개발	50
무등산 미술관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	100
생태기반 세계평화조각품 설치(2억 × 2개)	400
탬플스테이 연계 무등산 달빛 산사 명상 체험	50

❍ 추진일정
- 의재로 문화거리 조성 T/F구성 및 운영　　: '21. 8. ~ '22. 1.
- 의재로 관광프로그램 운영　　: '22. 2. ~
- 의재로 문화적 환경정비 추진　　: '22. 6. ~

정책17. 문화콘텐츠 거점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거점센터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광주CGI센터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거점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도 지속 양성한다.

문화콘텐츠 거점기반 조성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 사업기간 : '16 ~ '21년(6년) ※ '21. 12월 준공 예정
- 장소/규모 : 송암산단 / 지하1, 지상9층(부지 17,913㎡, 연면적 20,346㎡)
- 시설내용 : Aha 랩(기업 입주공간 및 기능실), Wow 랩(콘텐츠 전시, 체험, 마케팅, 교육 공간), 종합촬영스튜디오 및 야외 민자시설 등
- 주요기능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거점 센터

❍ 광주CGI센터

- 장소/규모 : 송암산단 / 지하1, 지상10층(부지 9,298㎡, 연면적 14,289㎡)
- 시설내용 : 스튜디오, 렌더팜실, 영상제작 스튜디오, 입주공간 등
- 주요기능 : 첨단영상 기술 기반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사업기간 : '21.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 500, 시 500)

❍ 장 소 :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전일빌딩245 등

❍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인적기반 구축 및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교육목표	사업비(백만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아카데미**	대학 연계 예비 전문인력 양성 과정(정규/학점인정 과정) - 교과목 : 3D모델링, 그래픽영상, 웹툰창작실무 등	200명	**850**
	콘텐츠 테크하이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정(취업 연계 과정) - 교과목 : 애니메이션, 3D모델링, 게임그래픽, 웹툰3D배경 등	100명	
공예·디자인산업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진흥원)		공예·디자인 기술력 향상 교육 및 상품화, 일자리창출 (현장실무형)	18명	**150**

(핵심비전5. “함께” 포용하는 문화공동체 실현)

문화도시의 품격은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에서 시작된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예향 광주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시는 앞으로도 연령, 세대, 인종, 장애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한다.

정책18. 통합문화이용권 적극홍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지난해 약 7만여명의 시민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였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혜자가 사용할 있도록 유도하여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개요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사업기간 : ’21. 2. ~ 12.　※ 카드발급 : ’21. 2. 1. ~ 11. 3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
‣ 2021년 목표 67,288명 / 광주시 총대상자(93,066명)의 72.3%
❍ 사업예산 : 6,728백만원(기금 4,891 / 시비 1,837)
❍ 사업내용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지원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정책19.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페스티벌 개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문화적 융합을 위해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주민 등 예술인을 지원하는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여 연령, 세대, 인종, 장애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112백만원(국비 100, 자체 12)

2021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 문화다양성 가치를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광주영어방송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라디오 캠페인
누리밥집	- 이주민과 지역 청년이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15회 운영 - 음식을 매개로한 문화 교류 내용 포함 영상콘텐츠 제작
채널 우리누리	- 이주민이 직접 기획 및 제작하는 라디오 운영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	- 지역 내 소수문화 주체가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운영 - 참여인원 : 이주민, 장애인 등 관련 인원 총 7인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144점 접수, 16개 작품 선정)
문화다양성 단편 영화 제작	- 소수 문화 주체가 직접 참여한 단편 영화 2편 제작 - 참여주체 : 학교 밖 청소년(스텝), 장애인(영화음악)
호남권 문화다양성 워크숍	- 호남권 무지개다리 참여 기관 3개 기관 직원 워크숍 - 참여기관 : 광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우리누리 캠프 (다양성 페스티벌)	-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소수문화 테마여행 캠프 운영 - 참여인원 : 다문화 가족, 지역민 총 30명

향후계획

❍ 소수문화 크리에이터 양성(광주시민방송) : '21. 6 ~ 11.

- 소수문화 주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진행

❍ 장애인, 이주민 등 예술인 활동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 '22. ~

정책20. 18분 문화공동체도시 구현

대형 문화기반시설은 물론 자치공동체 기반 마을단위 문화공간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실현을 위한 생활문화와 문화복지를 확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계획

❍ 지속적인 문화기반 시설 확충

-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도록 지속적인 문화기반 시설 확충

❍ 우리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 2021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

o 사업규모 : 23개 151억원
- 자치행정과 12개 34억원, 민주인권과 1개, 2억원, 사회복지과 1개, 1억원
- 여성가족과 1개 1.5억원, 청년청소년과 1개, 2.3억원, 환경정책과 1개, 3.2억원
- 도시재생과 1개 26억원, 도시정비과 1개, 15억원, 문화도시정책관 2개, 11억원
- 문화기반조성과 1개 50억원, 일자리정책관 4.6억원

* 자치행정과 사업중 공간조성사업은 '마을 거뮤니팅 공간 조성사업'으로 2.2억원

❍ 문화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활성화('21년 430백만원)
-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을 매칭하는 사업(2019년부터 문체부공모사업으로 추진중)
  2022년부터 마을에 대한 지원이 확대 할 수 있도록 시비부담 고려

❍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문화공간 지속 확충
- 정부의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동) 단위 생활문화공간을 확충 추진

※ 추진중인 문화시설 건립현황

사업명(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2019.~2023.)	170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중('21.3.~7.)
광주전통생활 음악당 건립(2021~2024)	400	용역 준비
상무소각장 문화재생(2021.~2024.)	450	공간활용전략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중(20.8.~21.6.)
광주문학관건립(2019.~2022.)	136	전시설계및 제작설치용역 추진중('20.2.~22.12.)
사직공원상설공연장 조성(2020.~2023.)	190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중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2020.~2024.)	1,500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조성(2017.~2021.10.)	278	공사 추진중('19.12.)

사업명(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
신창동유적학습체험관 건립(2018.~2022.)	120	공사 추진중('20.12.~'21.12.)
전라도 천년기념 희경루 중건(2018.~2022.)	60	공사 추진중('21.5.~'22.)
광주대표도서관 건립(2017.~2023.)	39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20.1.~21.9.)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2019.~2023.)	29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20.12.~21.11.)
공동도서관 확충(2017~2023)	143	8개관 건립, 2개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조성(2021)	2.5	2개관 조성
시립점자도서관(2020~2021)	1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21.6.)
임동 문화예술공간 조성 (2019~2022)	19.8	공사추진('21.6.~'22.)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2019~2021)	48	공사추진('21.6.~'21.12.)
호남의병 기념관 건립 (2020~2024)	360	도시계획결정용역('20.~'21.)
광주실감콘텐츠 큐브조성 (2016~2021)	1,046	공사시공('19.9.~'21.12.)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2014~2023)	245	음식점유치, 음식문화축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1,125	행정안전부 타당성심사

〈 맺음말 〉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지방정부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직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어 문화예술분야 국비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사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문화예술분야 국비규모도 증액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8년

- '18년 52건 908억원, '19년 66건 1,203억원, '20년 81건 1,531억원, 95건 1,658억원

2019년부터는 국악상설공연을 지역의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하여 예향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일빌딩245'는 개관('20.5.)이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민선7기 들어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나 킬러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통해 광주문화가 변화와 혁신의 큰 파도를 일으키며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실천계획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다듬고 「5대 '함께' 문화비전과 20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단순히 발표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추진실적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와 공유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끊임없는 재원도 투입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로의 도약을 위해 한단계 한단계 과제를 실행해나가는 공무원의 열정과 노고도 살피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지지와 박수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문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함께 ‘존중’하고 함께 ‘지속’하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살고 싶다

임 인 자

(소년의 서 대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함께 '존중'하고 함께 '지속'하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살고 싶다

임인자(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0. 들어가며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주간(3.8.~3.12.)에 이어 2021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문화예술 특별주간을 마련하여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광주의 미래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날인 2021년 3월 26일 광주민예총 간담회를 위해 광주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한 이용섭 시장 앞에 광주시립극단 대책위원회 장도국, 도민주, 임인자 이렇게 세명이서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사태'를 해결하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문화예술 특별주간이라고 하니 2020년에 일어난 광주시립극단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투명인간이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간담회장으로 들어섰고, 그리고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이용섭 시장과 공무원 일행은 뒷문으로 빠져 나가버렸다.

그 이후,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및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실은 5대'함께'비전과 20대 정책을 발표했다. 나는 2021년 6월 24일에 개최 예정인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초대되었다. 그리고 발제자인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발제문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5대 '함께'비전과 20대정책>의 내용과 함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짤막한 글이 있었는데,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선 7기가 이제 1년 남아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을 진단하는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성찰로서 이 정책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다. 아니면, 이용섭 시장의 재선을 준비하는 문화정책인가?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대 '함께'비전과 20대 정책>의 내용 속에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함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5대 '함께'비전과 20대 정책>은 민주적인 과정으로서의 '함께'가 결국'함께'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조성하고,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2020년 광주시립극단의 공연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술인들은 잘못된 정책, 광주광역시 산하 시립문화예술기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에 문을 두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곳은 없었다.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조금의 변화를 위해 매일 매일 애쓰고 있는 예술가들을 생각하며, 귀 기울여주는 몇몇의 기관이 생겼음에도 조금은 참담한 마음으로 발제문을 쓰게 되었음을 밝힌다.

1. 선정자가 한 명 뿐인 청년예술 창작지원프로그램, 미래는 있는가?

(1) 광주에서의 청년예술가 지원프로그램[1)]

"창작역량과 수준을 염두에 두고 평가"[2)]하여 광주광역시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에서 문학 분야 청년예술인 선정자는 단 1명(2021)[3)], 문학분야 생애최초 예술인 선정자는 0명이다. 뿐만 아니라, "단원 확보 등 공연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프로그램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단체를 선정"[4)]하여 무용 분야에서 청년예술인은 1명이 선정되었고, 무용분야 생애최초 예술인이 1명 선정되었다. 다원예술분야에서는 청년예술인 2명, 생애최초예술인은 1명이 선정되었다. 시각(2021년 청년예술인 8명, 생애최초예술인 1명), 음악(2021년 청년예술인 20명, 생애최초예술인 2명), 전통예술(2021년 청년예술인 5명, 생애최초예술인 1명) 분야의 강세와는 다르게 왜 문학분야, 연극분야, 무용분야, 다원예술분야에서는 총 38명 중 각 1명이 선정되었고, 생애최초예술인 역시 한명도 선정되지 못했을까?

---

1) <5대 '함께' 비전과 20대 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김준영 문화체육관광실장의 발제문에서 제안된 정책5. 청년 및 신진작가 예술활동 지원 및 한예종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유치를 염두하고 작성하였다.
2) 심사평, 백수인(심사위원장), 김중일, 정대훈, 고영직, 이은봉(*심사위원 소개순),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선정결과 (광주문화재단, 2021년 3월 19일 발표)
3)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선정결과 (광주문화재단, 2021년 3월 19일 발표)
4) 심사평, 박경숙(심사위원장), 이재승, 강명선(*심사위원 소개순)

이는 2021년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서 문학분야 청년예술인은 여전히 1명, 문학분야 생애최초 예술인은 0명, 연극분야 청년예술인은 1명, 연극분야 생애최초 예술인은 0명, 무용분야 청년예술인은 1명, 무용분야 생애최초예술인은 1명, 다원예술분야 청년예술인은 1명, 다원예술분야 생애최초예술인은 0명이 선정되었다. 2019년 역시 마찬가지다. 문학분야 청년예술인은 1명, 심지어 다원예술분야의 청년예술인은 아예 선정자가 없다고 발표했다.[5)]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접수건수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선정건수	38	1	7	2	1	20	5	2
지원결정액	152,000	4,000	28,000	8,000	4,000	80,000	20,000	8,000

[표 1] 2021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 결과[6)]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접수건수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공지안됨
선정건수	7	0	1	1	1	2	1	1
지원결정액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표 2] 2021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생애최초지원** 결과[7)]

"역량과 수준"을 논하며 가능성의 싹을 아예 자르는 것이 과연 광주광역시 청년예술정책의 본질인가? 왜 이 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창작역량과 수준"을 평가하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은 예술가가 스스로 기획하고 창작하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창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은 지원 사업이 바로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각예술과 전통예술을 제외하고 각 1명에게 주어진 기회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5) 2019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선정결과, (광주문화재단, 2019년 2월 28일 발표)
6) 광주문화재단 2021년도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21년 3월 19일 발표
7) 광주문화재단 2021년도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21년 3월 19일 발표

광주광역시 김준영 문화체육관광실장의 발제를 보면 "함께" 실현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정책을 실현한다면서 청년예술가 및 신진작가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지역주도형 청년 비엔날레 인력양성, 지역주도형 청년 문화일자리 지원,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와 더불어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 1,617백만원의 약 9%인 173백만원의 집행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단 몇 명의 예술가를 선정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전체를 통틀어 교육이나 양성 등의 과정이 아닌 청년예술가에 대한 자율적인 성격의 지원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인데, 문학, 연극, 무용 등에서 매년 각 1명을 선정해서 정말 청년 문화예술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광주 이외의 지역문화재단에서의 청년예술가 지원프로그램

광주 이외의 지역문화재단에서의 청년예술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두가지 트랙으로 신진예술인과 생애최초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1년 생애최초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접수건수	126	18	47	5	5	7	13
선정건수	32	6	12	1	1	2	3
지원결정액	100,000	17,000	33,000	4,000	10,000	24,000	12,000

[표 3] 2021년 강원문화재단 생애최초지원사업 결과[8)]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총 6개 분야에서 총 32건을 선정하여 10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신진예술가지원사업과 생애최초지원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고, 신진예술가지원사업보다 생애최초지원사업의 선정자수가 더 많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분야로 나뉘고 2차년도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8)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생애최초지원 사업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21년 2월 26일 발표

다음은 대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결과이다. 대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청년 및 신진작가 지원 분야에 있어 신규 단체 활동 지원사업 및 개인 예술가의 생애 최초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단체 지원은 신규단체 활동, 창작지원, 창작활성화, 명작산실 지원과 같이 단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예술가에게는 생애최초, 경력, 원로의 단계로 지원하고 있어 단계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 조사, 예술교류, 창작 연구년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창작의 근간을 마련하고 계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야	단위사업	선정건수	지원결정액
예술 단체 지원	신규단체활동지원	30	110,000
	창작활동지원	143	775,000
	창작활성화지원	14	346,000
	명작산실지원	5	25,000
소계		**192**	**1,256,000**
개인 예술가 지원	최초예술활동지원	10	21,000
	경력예술인활동지원	31	107,000
	원로예술인활동지원	5	25,000
소계		**46**	**153,000**
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지원	학술조사활동지원	15	60,000
	예술교류활동지원	12	45,000
	[신설]창작연구년지원	7	15,000
소계		**34**	**120,000**
공연장 상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7	584,000
소계		**7**	**584,000**
합계		**279**	**2,113,000**

[표] 2021년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결과[9)]

또한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면서 사회적 가치로서의 예술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예술진흥팀에 의해 수행되고, 청년예술인 역량강화와 같은 사업은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의 예술인 지원팀을 통해 지원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다각적인 예술인 복지와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예술로 파견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2021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문학분야의 7건의 지원신청 중에 3건을 선정하여 3명의 청년예술가를 지원하고 있고,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서는 '2021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예술분야와 생애첫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예술분야지원에서 공연예술분야는 12건, 시각예술분야는 11건,

9) 대구분화재단, 공지사항, 2021년 3월 12일 발표

생애첫지원사업에서 공연예술분야는 8명의 예술가,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총 11명의 예술가를 선정하였다.[10)]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문학, 시각예술(A.B,C,D트랙),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등을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청년예술가 창작 및 대관료 지원사업(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예술일반-대중,연예), 다원 분야)을 수행하면서 창작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수행하고 있었다.[11)]

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권리를 보장하라.
- 예술인의 노동인권침해, 계약과 보험가입,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1) 광주시립극단에서 보여준 총체적인 부조리, 그리고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사건 해결과정의 문제점

① 광주시립극단 내의 만연한 위계폭력, 그 정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불공정 계약 강요, 연습 중 안전사고, 보험 미가입

2020년 6월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정기공연 연습중이었다. 연습실 바닥 매트 사이에 발가락이 끼어서 배우 A는 부상을 입었다. 정식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어 연습을 시작했지만, 광주시립극단에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연에서의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광주시립극단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배우 개인이 가입한 예술인 보험으로 병원비 등을 처리해야 했다.

서커스를 하는 배우로서 부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작품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연습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무대감독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타이트한 연습복을 입고 있는 배우의 신체를 비하하며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성희롱을 경험해야 했다.

10) 부산문화재단, 공지사항, 2021년 3월 26일 발표
11) 참조,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연습실에서 안전을 돌봐야 할 무대감독으로부터 왜 이러한 발언까지 들어야 했을까. 배우 A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여성 탈의실에 들어와 희롱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시립극단 정단원이라는 신분의 무대감독, 연출에게서 발생한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게다가 오디션에는 연출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점수를 매겨 오디션의 당락이 결정되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작품별 단원들은 과연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었을까.

② 광주시립예술단,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광역시의 안전 불감증

게다가 연습 중 안전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서 연습 중 다른 배우들과 스탭들에게까지 안전사고가 이어졌을까. 신체를 많이 쓰는 공연인 <전우치 시리즈>는 2020년이 처음이 아니며, 광주시립극단에서 네 번째로 이어지는 공연이었는데도 왜 아무런 안전 대책은 없었는가.

무대 연습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 배우 A는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할 수 있다. 서커스 배우로서 신체를 사용하는 곡예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에게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사건 해결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와 광주광역시의 방치 때문에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2차 피해와 트라우마는 배우 A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제기를 했던 조연출 장도국, 배우 B, 배우 C에게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문제제기를 했던 배우들과 스텝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모두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까지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연습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시립극단 연출과 무대감독 측은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전우치'공연의 특성상 마루 바닥을 새롭게 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연장 사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끼임사고나 골절 사고 등을 대비한다면 안전관리 예산을 들여 대책을 마

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연습실내 안전사고 이후에도 연습실 바닥은 바뀌지 않았다. 무용수들의 경우 작품 특성에 따라 특수한 바닥면, 즉 다양한 기능의 댄스플로어를 사용하고, 그래야만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연에 임할 수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건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한다) 광주인권옴브즈맨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고, 광주인권옴브즈맨은 그 결과에서 이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연속으로 일어난 안전 사고 등을 방치하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교육 등만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공연의 준비과정과 공연 과정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방치해버렸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은미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광주문화예술회관 2020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안을 살펴보니, 재해대처계획안에는 대소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피난 안내 및 안전 조직만이 작성되어 있었다.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의거 그 운영을 명받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각 광주시립예술단의 연습에서부터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 대책은 전무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공연법>에서 명시한 공연장 운영자가 해야할 안전에 관한 의무가 500석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5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서 <공연법>과 그 시행규칙에 언급된 공연장만의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자 시립으로 운영되는 광주시립예술단에서 아무런 안전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서는 심지어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연장 외의 기준이 관객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되려 관객수가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는 부상을 당한 배우 C가 스탭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공연에 필요한 무술을 연습하던 중에 입은 발가락 골절 부상

으로 인해 작품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었던 배우C에게 시립극단 상임연출과 마술 감독이 <전우치> 공연을 하루 앞두고 무대에서 쓰이는 마술장치의 제조, 설치 및 실행을 시켰다. 해당 마술 장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약의 종류와 사용 장치에 따라서 제품의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관련 자격을 갖춘 자가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취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다. 안전 관리 책임자와 허가를 구해야 하는 마술 감독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상황에서 장치를 배우에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업무지시할 수 있는 상임연출자와 마술 감독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강력히 규탄 할 수 밖에 없다.

발사 장치에 화약과 점화옥을 연결하고 무선 스위치를 눌러 폭발시키는 장치이다. 관련 장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실행 경험도 전무한 배우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배우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켰다. 공연 리허설 상황에서는 간단한 마술도구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바람에 날려 엄지손가락에 1도 화상을 입었던 배우가 있을 만큼 불꽃이 터지는 해당 장치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연습실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배우의 안전을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를 이유로 현장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무대감독을 대신할 안전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해있지 않았다. 마술 장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술 감독 역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공연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무술, 마술, 음악, 안무감독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12)]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연습 중 안전 사고, 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진 도포류법 위반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문화예술에는 비 전문적인 인권옴브즈맨 결과, 그리고 제도의 부재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연습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총체적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12)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 작성 <광주시립극단 비상근 객원단원 노동권, 인권침해 문제>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사건 개요. 2020년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 감독, 운영실장 등에 대해 별도로 노동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할 것,
-객원단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것,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들에 대하여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신청요지 다, 라 항은 각하한다.

광주인권옴브즈맨은 위계적 환경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성차별로 판단하였다. 작품별 단원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위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객원 단원[13]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아닌 제기된 문제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권고하였다. 고용불안, 직업적 권리 미보장, 노동인권침해, 유령지위, 위계폭력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작품별 단원제' 문제 진단과 이후의 적절한 단원 고용시스템(예술노동자의 직업적 권리와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에 대한 적절한 고민과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앞서 기술한 안전 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하여 작업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연법> 상 500서 이상의 공연장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전우치> 공연이 야외에서 공연된다는 이유로 방치되었다면,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교육 시행 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서 일어난 문제와 해결의 과정은 폭력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창작환경이 얼마나 부당하고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었다.

---

13) **작품별 단원제의 병폐, 투명인간이 된 예술가**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에 출연했던 배우와 조연출은 불공정계약, 갑질, 안전사고 등에 문제제기하며 광주시립극단에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립예술단(단장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떡하니 올려놓았다. 처음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 인권옴브즈맨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했고, 광주 인권옴브즈맨은 사건 조사결과에서 연습 시작 전 계약서 작성, 불공정 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한 개선사항을 내놓았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성차별로 판단하는 결과를 내었다. 광주 옴브즈맨은 문화예술계의 전문적인 사건의 진상 조사보다는 인권 침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결과를 내었다. 피해자들은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옴브즈맨의 조사 당시 광주지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결과를 내 놓으면서, 광주시립극단의 '작품별 단원' 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립예술단 설치에 관한 조례에 '단원'의 범위에 '정원'범위가 확정되어 있어, '작품별 단원'이 단원으로서 지위를 보장받을 길이 요원한 상태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21년 12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징계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징계를 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그 징계는 '감봉'[14]이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양정기준을 살펴보니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강봉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 심지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조차 모두 같은 징계를 내리고 있어 합당한 양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시립예술단의 사례를 보았으나 비슷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공연장은 남녀노소누구나 방문하는 곳으로 예술가에 대한 성비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위까지 모두 비위 정도에 따라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이 다시 돌아온 광주시립극단에서 피해당사자들이 다시 오디션을 보고 다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예술가들의 활동 이후,

---

14)(광주광역시립예술단 복무규정 별표) [별표 2] <개정 2017.3.1.>

처 벌 양 정 기 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성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4.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등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5.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별표 2의2와 같음			
마. 기타 범죄행위(형사벌 등)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6. 불법집단행위 금지 위반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7. 선동 및 단체해단행위 및 기타 규정위반 행위	해촉	출연정지(직무정지)	감봉	견책

※ 비고 :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장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광주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무대 안전 등 전문적인 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개선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대 안전 등 예술의 전문적인 영역을 조사하지 않는 광주인권옴브즈맨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조치가 필요하다.

④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 소통센터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부제 :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위의 일들을 통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한다. 우선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에게 일어난 불공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위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사례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2019년에 광주의 문화예술단체 **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피해 당사자는 이 문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하였지만, 상주 변호사의 자문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광주로의 방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예술인 복지에 관해서도 서울 중심인 이러한 환경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예술인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19년 3월부터 2020년 말까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을 역임하면서 몇차례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무사 및 변호사의 상주 등에 대한 사안을 건의해보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자문의견서[15]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이름	임인자	날짜	2019. 12. 4 .
자문의견 기술			
1. 2019년 광주문화재단 성과와 반성 **(1)OO 단체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건** - 광주에서 활동하는 00 단체에서 성희롱 (언어폭력 동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단체에서의 예방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 당사자에게 성희롱 이후의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5) 2019년 12월 4일에 광주문화재단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규칙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예약 교육 의무화 필요
현재 2019년 상반기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신청시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규칙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사업에 대한 2018년 하반기의 지원신청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지원 신청시에 예술 단체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규칙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화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단체에서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동영상 예방 교육으로는 안됩니다. 00 단체에서는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예술단체에서의 성희롱 사건 및 2차 가해가 일어 날 때, 예술가가 신고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 권익 보호 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에 이에 대한 신고 창구가 있지만,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나 노무사가 파견되거나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특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가들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극히 미비하거나 사업 담당자 인건비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의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이며, 광주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사업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문화예술자문회의가 1년에 2차례 있는 것은 자문회의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5). 광주학에 대해 업무 분장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광주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광주학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를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반대합니다.

2. 2020년 광주문화재단 목표와 전략수립

(1) 2020 광주문화재단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술인 생태계", "예술인 복지", "예술인 권익"에 대한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평등"과 같은 것은 희망도 품을 수도 없겠지요?
2020년에도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을 호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술인과 예술이 주체가 되지 않고, 예술을 도구로, 예술인을 도구로 삼는 문화재단은 그 본질을 상실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광주문화재단의 전략을 수정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2020년은 5·18민중항쟁 40주년입니다. 이 항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뮤지컬 사업 등을 보면, 그 어디에도 광주예술가의 주체적인 참여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5·18민중항쟁을 이야기하는 자리마저, 광주예술가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내년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예술가들과 어떻게 협업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표이사가 황풍년 전 전라도닷컴 편집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최근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통해 확인한 광주광역시에서의 예술인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16](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조에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는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https://www.open.go.kr)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예술인복지지원계획도 그리고 예술일복지증진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살펴 볼 수 없었다. 2021년 3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총 225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394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열리지도 못했다.

16) 예술인복지지원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나오며

검열과 블랙리스트 싸움으로 부끄러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나는 2018년 2월 동료의 미투 이후 내 주변의 폭력을 방치하였고, 방조하였다는 생각에 매우 부끄러웠다. 아름다움을 위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모른 척해왔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6.9m의 무대 상부에서 故 박송희님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후 사건이 해결된줄만 알던 나는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가서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료들을 살펴보니 지금까지의 무대 안전 검사와 매뉴얼은 모두 기계와 시설 중심이었다.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면 무대 장치가 이동할 때 움직이는 조명등, 알림음 등이 작동하고, 그리고 펜스를 설치하여 추락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안전조직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의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故 박송희님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조연출이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 죽음과 광주시립극단의 문제,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나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와 폭력들이 결코 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자는 예술가들의 고독한 외침을 흘려듣고 무시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광주광역시라면 언제라고 또 박송희님의 죽음, 그리고 최근의 학동 재개발 붕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패 널 토 론 문

지역 문화정책의 3대 의제와 의제 별 논점

前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박호재

1. 지역 문화정책의 3대 의제

○문화민주주의, 향유의 공유 : 문화소비가 특정 문화애호가 그룹이 아닌 일반 시민, 소외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이르기 까지 문화복지 차원에서 향유의 보편화를 성취

○문화예술교육 : 'more culture, better soclety' 테제를 기치로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예술인 활동 기반 조성 : 창작자들의 노동자성을 근간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과 결과물 유통, 생활복지 등 전방위적인 관점의 지원책

2. 의제 별 논점

○**문화민주주의, 향유의 공유** :

-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등 기관들이 주도하는 대다수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기획 퀄리티 중심' 의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문화향유 보편화의 부실 오류를 도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양식을 갖춘 문화 애호가 그룹의 문화향유 기회가 증폭되고, 일반시민이나 소외·취약계층의 향유 체험이 오히려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연습·모임공간, 교육강사 지원, 빌표기회 지원 등) 확장 필요성 제기

○ **문화예술교육**

- 방과 후 예술강사 운영, 민간 기획자들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 학내 동아리 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초등학생에서 중2 연령대 까지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모든 장르의 예술 지원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 운영을 권장 또는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문화재단의 콘텐츠를 문화예술 교육의 커리큐럼화 하는 공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예술인 활동 기반 조성**

- 단체·개인별 보조금 지원사업,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국비운영 예술인 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융복합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영역이 확대

- 최근에는 광주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외면함으로써 심각한 갈등 양상을 노출, 개선책 시급

- 지자체의 공공활동에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문화 뉴딜) 영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예술인 참여 공공사업 적극적 발굴

- 지자체가 주관하는 메세나 추진을 통해 지역 예술인 창작기금 조성 사업 필요성 제기

광주영화정책, '지역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 이강필

광주영화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인프라 지원은 광주국제영화제 파행사태(2016) 이후로 최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광주영화에 대한 예산지원은 21년 현재 11억으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95억, 서울 45억, 인천 31억 등 아직 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어떠한 분야건 간에 정책적인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관의 모든 정책적 행동 자체가 각자 따로따로 움직여버려 의미 없는 행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영화 정책의 청사진은 '지역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광주영화플랫폼 구축, 광주영화인 DB, 광주영화 아카이브 정리, 광주지역 영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영화적인 정책이 한 데 모여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급선무다. 각 지역은 영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한 영화·영상 전담기구를 세워 영화관련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또한 19년 7월 「광주영상영화진흥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 영상영화문화 진흥을 위해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와 지원방안이 포함된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에 맞는 행정적 절차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다.

광주영화계의 공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18년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4년째 광주독립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1억 단위의 국비를 받아와 지역의 영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먼저 시민들과 지역영화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영화를 배우고 활동할만한 플랫폼 공간이 전무하다. 광주지역에는 '광주독립영화관'이 있지만 영화관은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곳이기에 영화교육과 소모임, 지역영화 아카이브, 영화도서관 등 플랫폼의 역할을 실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2월, 조례에 따른 <광주영화영상진흥위원회> 구성과 설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조례 제정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 설치되었음이 아쉽긴 하지만,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회와 광주시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영화산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영화 정책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와 함께 영상영화진흥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영상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광주에 부족한 영상영화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영화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광주 영화생태계를 성장시키면서 광주의 영화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많은 광주지역 영상영화관련 데이터들을 축적해내야 한다. 지역의 영화인, 스탭, 감독, 배우 등등 데이터를 만들어 확보해야한다. DB작업이 선행되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큰 그림의 정책관련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배경지식(관련 데이터, 연구결과의 축적)이 없는 정책설립은 행정적 낭비에 불과하다.

1. 지역영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주영화플랫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화플랫폼이란 앞서 서술했듯 영상영화 교육공간 및 촬영장비 보유, 영화인들의 모임공간 마련 등 지역영화인들의 구심점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상영화관련 많은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다. 플랫폼에 대한 공간조성을 어떻게 진행하려 하는지, 영화연구용역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GCC의 역할은 스튜디오와 장비대여 등 타 지역의 산업적 측면의 역할만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 독립장단편영화, 기초적인 광주영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만한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주는, 전주시와 전주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다. 628억의 예산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기본적인 영상영화산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GCC 역할과는 다르게 내부 공간을 영상산업 교육공관, 문화교육공간, 시민모임공간 뿐만아니라 영화도서관과 카페, 그리고 공공상영관,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실 등 함께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2. 영화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영화전담기구 설치가 급선무이다. 타 지역의 전담기구의 경우 사단법인, 출연기관, 직접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장애인 문화, 현실과 과제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정진삼

I. 장애인 기본권과 문화복지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의 법적 근거는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와 여가에 대한 권리보장이 그것이다.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1조에 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문화생활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제4조 2항에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장애인의 문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 표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지역 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 제4조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년 의견수렴 절차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이러한 법적 근거까지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의 실천이 아쉬움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지금보다 더욱 확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I. 문화복지의 발전과제

현대사회에서 이토록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복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에 관한 당위적 논의는 대부분 십수년 간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문화복지를 이루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도 나름대로 틀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의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실천하느냐는 실행의 문제를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얼마나 동참하여 문화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키느냐는 의식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간 학계와 문화복지 현장에서 발전과제 또는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문화복지의 주체는 문화의 향유자인 장애인 당사자라는 전제 아래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정책이 문화의 소비자 또는 향유자 보다는 생산자 또는 창작자 위주로 흐른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여백이 부족한 현실이며, 문화향유의 주체로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복지의 지원은 지역의 지자체를 기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도 중앙 위주에서 지방 또는 지역으로의 이양이 시도되어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는 속성상 일정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창한 전국적 계획 못지않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 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은 문화복지의 핵심 사안이다. 지역 내 문화복지 유관기관이나 장애인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복지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체육,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우선 법제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이라는 장(章)을 두고 있으나 문화예술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으며 그러다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강좌 설치 권고(제12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지원(제13조)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제15조 2) 등 정도의 법제화에 그치고 있다. 문화복지의 일부 분야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외에도 문화복지 참여 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II. 맺으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재원공급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예산이 중요한 만큼 문화복지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문화재정을 역동적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민선 7기 출범 시 광주 시민들이 제안하고 이용섭 시장님이 동의 또는 유보한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정책>은 어디로 갔나?

광주문도협 협동 사무국장 김종필

이용섭 시장님의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출범 당시 예비후보일 때부터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연대(6.13지방선거 문화정책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화정책의 방향 및 10대 핵심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당선 후2018년 12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경과보고 및 정책제안을 하는 등 이를 확인, 점검, 보완해 것으로 안다.

1. 문화부시장제 도입(동의)
2. 문화 협치 조례 제정(동의)
3.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유보)
4.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동의)
5.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유보)
6. 문화예술지원보조금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동의)
7. 광주 예술가의 집 건립(동의)
8.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동의)
9.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동의)
10.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동의)

이상의 10대 핵심정책을 임기 내에 추진하기로 약속되었다.

이제 임기가 1년 여 남아있는데 공약이기도 하였고 당선 된 후에도 약속되어진 핵심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이러한 과정 등에 대해 광주시의 설명에 이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흔적, 그 미래 가치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엄수경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포럼 발표문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실천 계획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실감 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식견이 짧아 공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학동 붕괴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기록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파리와 파리 사람들 사진으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가 중 한 사람이 된 1857년생 으젠느 앗제. 오늘날까지도 기록 사진을 찍고 예술 사진가로 칭송받고 있다. 사실 그는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화가들에게 풍경과 인물 사진을 촬영해서 팔았다. 당시 예술계에서 사진은 독립적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 예술성을 비판한 대표적 인물은 보들레르다. 1859년『현대의 대중과 사진』에서 "사진은 충실하게 사물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기능은 화가를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예술은 아닌 것"이라고 사진 예술성을 부정했다. 당시 예술가들은 사진은 사실 재현만 가능할 뿐, 그 이상 예술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사진이 예술 한 분야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앗제는 사진과 인연을 맺은 후 상업 사진에 눈을 돌리지 않고 끈질기게 파리 뒷골목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준비되어 있었기에 기회가 찾아왔다. 20세기 초반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로 매일매일 변해 갔다. 앗제가 파리 시내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파리시는 변화해가는 도시를 촬영해 달라고 의뢰했다. 도시는 날로 커지고 새롭게 건물들이 여기저기 올라갔다. 하지만 앗제는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쓸쓸한 파리 모습을 카메라에 담담하게 담았다.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적, 사적으로 에펠탑이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건물보다는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뒷골목 풍경, 새벽 파리 거리, 하층민 모습 등을 촬영했다.

앗제는 당대에 크게 평가받은 작가는 아니었다. 그의 사진 가치를 알아봐

준 사람은 미국 베레니스 애보트였다. 20세기 파리를 아카이빙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앗제가 사진 기록을 했기 때문이고, 둘째 오스만 남작이 재개발되는 도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의지, 마지막으로 애보트가 원석을 알아봐 주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으젠느 앗제 사진을 수집해 미국 MOMA(미국 현대미술관)에 5천 점을 기증함으로써 사람들이 앗제뿐 아니라 그의 사진을 눈여겨보고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도 어느 도시나 재건축, 재개발로 매일매일 도심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겹던 골목길은 찾아볼 수 없고 삭막한 아파트빌딩 숲이 자리해 가고 있다. 사라져가는 도시 기억을 앗제처럼 기록하는 작가가 있을까? 오스만 남작처럼 사라져가는 도시를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때때로 나는 어떤 의무감에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건축물이나 동네를 기록해보려고 한다. 관계자에게 촬영을 부탁해보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어쩌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쫓아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지우라고 겁박한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지금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기억 속에서 마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사정해보지만 마치 고발 사진이나 찍으러 온 것으로 취급당하고 쫓겨나기 일쑤다. 그때마다 넋을 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오지 못하곤 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에 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조례 등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심 속 골목길에 서면 떠오르는 풍경과 단어들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한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좁은 길, 쉼터, 소통, 아낙들 수다, 저물녘 아이 부르는 소리, 아버지 뒷모습, 흥얼거리는 노랫가락, 꽃, 담장 넘어온 과일, 자전거, 놀이터, 낙서, 공동샘, 빨래, 그림자, 허름한, 강아지, 어린 시절, 친구, 웃음, 만남, 이별, 희망, 꿈, 걸인, 이웃, 정감, 가로등, 추억, 문화공간, 재개발, 도시재생 등, 잊혀 가는 단어와 새로 생겨난 단어들. 잊혀 가는 단어들 속에 민중들의 건강하고 생생한 삶이 담겨 있다.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민중들 기억 역사다.

골목길에서 70대 풍경 하나를 만났다.

"집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나이를 묵어부렀소. 재개발헌들 여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형편이나 되것소. 이러다 저러다 집도 사람도 함께 사라져 불 곳이지라."

목구멍이 뜨거워진다.

뛰어난 기록 사진은 예술 사진임이 자명하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기록화될 때 이는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질문 1 _ 작은박물관 요청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기록화 작업 이후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실 등에 마을 역사 전시.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는 어른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그 마을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청소년들 교육현장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가?

질문 2 _ 도시재생이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재생이란 단어를 찾아봤다. 생물체가 절단된 신체 일부분을 대체 혹은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기 쉬운 물리적인 환경 정비에 주로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만날 수 있는 벽화가 주를 이룬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벽화라면 모를까?

민선7기 문화정책 중 보조·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토론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정두용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문화정책 중 <정책 4>에 해당하는 '보조·지원사업개선'에 초점을 맞춰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에서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취지에 무척 공감합니다.

'보조사업자들이 정산이나 회계처리과정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표준화된 보조금 집행지침과 교부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복・불필요한 행정서식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정산을 간소화하고, 문화재단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정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

❍ 지원사업 개선 실무 TF 운영

- 운영기간 : '21. 5. ~ 7.(3개월) / 월 2회 회의
- 구　　성 : 10인 내외(시 2, 문화재단 3, 민간전문가 자문 5)
- 소요예산 : 3백만원

소관기관	내 용
시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집행지침 및 교부조건 표준안 마련 ▸ 문화예술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문화재단	▸ 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검토(타 시.도 사례 분석) ▸ 지원사업 중복・불필요한 행정서식 발굴 ▸ 사업별 특성을 반영 정산간소화 방안 마련 등

지원사업 개선에 있어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지원사업에서의 인건비 책정 제한'과 '예산집행 및 정산'입니다. 이 중 예산집행 및 정산은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숙련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 지원사업 자체에 책정 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국의 문화재단 등 유독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특히 기초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전국의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만나면 이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곤 합니다.

최근 이런 주제로 광주시와 유관 기관에 꼭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웹진 465호에 실린 '일한 만큼만 지원하면 됩니다. 참 쉽죠?'라는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한상훈 대표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전문을 소개 드리고 싶지만 지면의 한계로 주요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일한 만큼만 지원하면 됩니다. 참 쉽죠?' 중 부분 발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1년 공모사업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금 내 인건비, 신청자 본인 사례비 등 편성을 확대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보조금 편성의 유연성 확대) 급변하는 창작터전 속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금 내 인건비, 신청자 본인 사례비 등 편성을 확대 지원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본인사례비와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 시, 본인이 본인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니 전액 지급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진다는 항목을 통해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몇몇 기관과 문화재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여전히 지원사업자 대표나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각종 사례비가 집행되지 못한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원기관들은 대표자 인건비와 기획비의 책정을 제한하는 것일까? 대구문화재단의 지원금 운용지침 제정 배경과 뒷받침 하는 규정은 이와 같다.

관련 규정으로 제시된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살펴봐도 기획비와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이어서 찾아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보조금 운영관리규정」(전면개정 2019.7.26.) 중에서 단체 대표자의 인건비에 대한 항목은 찾을 수 있었다.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표기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지원되는 사업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에 방점이 있다. 기획비의 경우는 어디에서도 제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는

데, 다만 집행 비목표에 '기획비'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수세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닌지, 또는 과도한 해석을 적용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한 선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부분의 사업에 지원금으로 기획비 책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내에서 대표자의 사례비편성이 가능하게 설정해놓았다. 아마도 지역문화재단이나 관련 기관도 지난 자부담 편성 폐지의 과정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선례를 따라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므로 변화는 시간문제라고 예상된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문화예술행정이 예술창작이라는 특수성과 변해가는 외부환경에 맞춰 예술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려는 선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이다.

발췌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살펴봐도 기획비, 대표자 인건비 책정 제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기존에 지자체에서 흔히 이유로 설명하던 행안부 상위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며 그렇기에 서울시 등 몇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지원사업에 인건비를 적극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식의 인건비 책정 제한이 생겼을까요? 짐작컨대 예전 시대에 문화예술 기획·창작 작업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열정페이' 관점에서 바라보던 입장과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유도하는 관변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광주시에 제안 드립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킬러콘텐츠나 랜드마크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 제도의 변화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소개 드린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에서 <예술인 보수의 현주소> 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표준사례비, 인건비 책정 제한 및 근거 등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을 뒤늦게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정책보다는 전국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개선된 문화 제도를 새롭게 선보이고 리더십을 보이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창작비, 인건비, 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연구와 민간의 의견수렴, 정기적인 집중 포럼 개최를 광주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발표자에 대한 질의>

"현재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원사업 개선 실무 TF 운영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인 듯 합니다. 이런 TF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월 2회, 3개월 운영되는 TF 만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이를 통해 예상되는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립니다."

별첨 : 서울시 지원사업 중 인건비 사용 50% 책정 사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 글 중 발췌-

이번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을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에서 최대한 제한을 낮추었습니다. 둘째로, 지원 액수를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의미가 있고 목적에 맞다면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담아보려는 의지입니다. 셋째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건비 사용을 프로젝트 예산 중 50% 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혁신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지원사업의 틀을 넘어 항목 지원을 열어 두었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1 1차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1. 6. 24.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1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